제19장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구자춘*·변승연**·은종호***·김나현****·조성은*****

I.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동향
1. 임업생산액 추이
2.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동향
3. 단기소득임산물 소비 동향
4. 단기소득임산물 수출입 동향

II. 표고와 고사리 수급동향과 전망
1. 표고버섯
2. 고사리

III. 수실류 수급동향과 전망
1. 밤
2. 떫은감
3. 대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elenium78@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eungyeon@krei.re.kr (고사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ejh87@krei.re.kr (밤, 대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knh123@krei.re.kr (표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ungeun@krei.re.kr (떫은감)

KREI
AGRICULTURAL OUTLOOK 2021 KOREA

요약

1) 표고버섯

- 2019년 생표고 생산량은 2010년 대비 7.5% 감소했다. 생표고 생산은 지난 10년 동안 2만여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건표고 생산량은 2010년 대비 64.8%나 감소했다. 표고목과 노동력 공급 부족, 표고목 재배의 대체재인 톱밥배지 방식 확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 표고버섯 생산량은 2020년 추정치인 26,560톤보다 5.4% 증가한 28,000톤 수준이 될 것이다. 건표고 감소세는 지속되나, 국내산 톱밥배지 공급 여건 개선, 시설 확충으로 대규모 톱밥배지 재배 임가의 생산량 증가가 건표고 감소분을 보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고사리

- 2019년 고사리 생산량은 2010년 대비 90% 증가하였다. 고소득 작물로 인식되어 재배면적이 늘었기 때문이다. 2021년 고사리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2% 감소한 8,000톤으로 추정된다. 최근 기상 여건과 임가 고령화에 따른 농사 기피 추세를 반영했을 때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밤

- 2019년 밤 생산량은 2010년 대비 33% 감소한 46,358톤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낮은 수취가격, 높은 고령목 비율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주, 부여, 청양, 충주 등 중부지역의 주산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남부지역 주산지 재배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밤 생산량은 기상여건이 평년 수준과 비슷하다면 2020년 추정치인 40,000톤보다 11% 증가하고, 평년 대비 14% 감소한 44,300톤 내외로 전망된다.

4) 떫은감

- 2019년 떫은감 생산량은 2010년 대비 80.9% 증가하였다. 생산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임업정책자금 운용 개선에 따른 재배면적 확대와 재배기술 발달 때문이다. 기존 산지(상주, 산청, 하동, 영암 등)를 중심으로 순천, 함양, 김천, 구미, 의성으로 주산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원 주산지와 거리가 있는 논산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2021년 떫은감 생산량은 2020년과 같은 기상이변이 없다면, 평년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161,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0년 기상이변에 따른 이례적 생산량 감소를 고려한 수치이다.

5) 대추

- 2019년 대추 생산량은 2010년과 비슷한 9,436톤이다. 경산, 보은, 군위 등 주요 주산지를 중심으로 부여, 의성 등 주산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경남지역의 재배지는 감소하였다. 2021년 대추 생산량은 기상여건이 평년과 비슷하다면, 2020년 추정치인 7,200톤보다 18% 증가한 8,500톤 내외일 것이다.

01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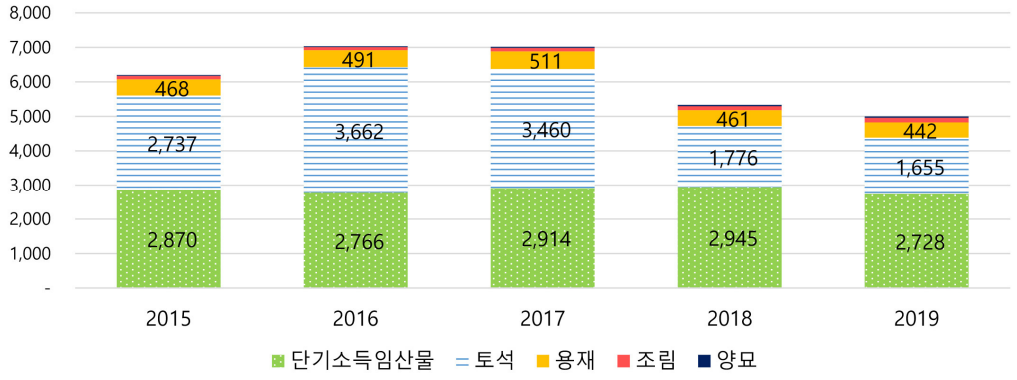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임업 생산액 추이

- 2019년, 임업생산액은 6조 5,6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감소했다. 순임목을 제외[1]한 임업생산액은 4조 9,9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 조림(22.3%)을 제외하고 양묘(△9.1%), 단기소득임산물(△7.4), 토석(△6.8%), 용재(△3.9%)의 생산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 전체 임업생산액 중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2조 7,2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으며, 평년 대비[2] 4.5% 감소했다.

그림 19-1. **임업 생산액 추이(2015-2019)**

단위: 십억 원



자료: 산림청(2020), 임업통계연보.

1) 2019년에 순임목생장액 산출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2) 평년은 지난 5년(2014년~2018년) 임산물 생산액의 평균임.

2.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동향

- 2019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부류별로 증감의 방향과 수준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전년 대비 약용식물 생산액 증가율이 27.8%로 가장 높았고, 조경재 생산액 감소율이 38.9%로 가장 낮았다.
  - 약용식물이 증가한 이유는 건강보조식품과 청정임산물에 대한 관심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오미자(41.2%)와 마(41.0%)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약용식물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39.8%가 증가했다.
  - 조경재가 감소한 이유는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야생화 재배면적 감소 때문이다. 특히, 야생화 생산액은 전년보다 66.5% 감소했다.

[표 19-1]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 추이(2015-2019)

단위: 억 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구성비	2019 증감률	
							2015대비	2018대비
전체	83,378	92,032	89,652	73,800	65,667	100.0	-21.2	-11.0
단기소득임산물	28,704	27,665	29,136	29,448	27,278	41.5	-5.0	-7.4
조경재	7,360	6,537	6,714	6,774	4,138	6.3	-43.8	-38.9
수실류	7,246	7,077	6,854	6,121	6,211	9.5	-14.3	1.5
약용식물	5,622	5,388	5,900	6,148	7,860	12.0	39.8	27.8
산나물	3,832	4,060	4,119	4,732	4,742	7.2	23.7	0.2
버섯류	2,441	2,379	2,481	2,405	2,305	3.5	-5.6	-4.2
기 타	2,203	2,224	3,070	3,269	2,022	3.1	-8.2	-38.1

주: 기타에는 수액, 톱밥, 수지, 연료, 목초액, 잔디, 칡뿌리, 자생란, 섬유연료, 농용자재, 기타부산물이 포함됨.
자료: 산림청(2020), 임업통계연보.

- 수실류(밤, 떫은감, 대추 등) 생산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최근 5년, 하락 추세이나 호두는 생산량 및 생산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40.8% 증가했다.
- 산나물(도라지, 더덕 등) 생산액은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더덕 생산액이 전년 대비 46.1% 증가했다.

- 버섯류(표고, 송이, 목이 등) 생산액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2019년 여름철 고온피해로 목이버섯과 송이가 각각 42.3%, 38.0% 감소했다.
- 기타 품목에서 눈에 띄는 것은 농용자재(사료)가 505.8% 증가했고, 연료가 63.4% 감소했다.

•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작약(741.1%)이었으며, 두릅(77.3%), 오미자(64.4%) 순이었다. 생산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은 오갈피(△86.7%)였으며, 복분자딸기(△39.6%), 천마(△29.1%) 순이었다.

[표 19-2]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 변화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5	2018	2019	2019년 기준 구성비	2019 증감률	
						2015대비	2018대비
전체 단기소득임산물		2,870,400	2,944,800	2,727,800	100.0	-5.0	-7.4
수실류	밤	101,090	114,507	105,887	3.9	4.7	-7.5
	호두	19,049	15,655	22,040	0.8	15.7	40.8
	대추	97,964	81,438	80,659	3.0	-17.7	-1.0
	떫은감	213,148	212,847	219,377	8.0	2.9	3.1
	잣	21,530	14,560	16,238	0.6	-24.6	11.5
	은행	15,362	15,774	11,654	0.4	-24.1	-26.1
	산딸기	16,277	20,042	18,033	0.7	10.8	-10.0
	복분자딸기	233,030	128,087	140,707	5.2	-39.6	9.9
약용식물	산수유	6,768	7,853	5,094	0.2	-24.7	-35.1
	오미자	146,690	170,797	241,181	8.8	64.4	41.2
	구기자	29,007	17,439	22,210	0.8	-23.4	27.4
	오갈피	27,447	18,489	3,642	0.1	-86.7	-80.3
	독활	26,079	26,278	20,360	0.7	-21.9	-22.5
	산양삼	35,249	40,872	43,113	1.6	22.3	5.5
	작약	14,645	15,943	123,172	4.5	741.1	672.6
	천마	37,848	52,988	26,829	1.0	-29.1	-49.4
	당귀	27,293	22,798	24,728	0.9	-9.4	8.5
	천궁	14,514	32,795	17,371	0.6	19.7	-47.0
	마	140,426	153,584	216,600	7.9	54.2	41.0

(계속)

구 분		2015	2018	2019	2019년 기준 구성비	2019 증감률	
						2015대비	2018대비
산나물	고사리	52,440	83,570	65,758	2.4	25.4	-21.3
	도라지	120,374	120,617	98,252	3.6	-18.4	-18.5
	더덕	134,277	149,656	218,709	8.0	62.9	46.1
	두릅	12,260	32,117	21,743	0.8	77.3	-32.3
	취나물	25,537	38,094	23,487	0.9	-8.0	-38.3
버섯류	송이	14,315	33,291	20,642	0.8	44.2	-38.0
	건표고	36,586	28,729	33,374	1.2	-8.8	16.2
	생표고	186,141	162,357	168,459	6.2	-9.5	3.8

자료: 산림청(2020), 임산물생산조사, 임업통계연보

3. 단기소득임산물 소비 동향

3.1. 식품 공급량

- 최근 10년,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기준,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소비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품목별로는 증감에 차이가 있다.
  - 밤은 2009년 이후, 소폭 감소세나(약 △3%/년 수준), 일일 견과 등 소포장에 사용되는 호두와 아몬드는 증가세에 있다(호두 약 3%/년, 아몬드 약 8%/년 수준).
  - 송이는 2013년 0.03g으로 감소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고는 2009년 0.34g에서 2018년 1.12g으로 연평균 14.2% 증가했다.
  - 산나물은 2013년에 저점을 기록한 후, 소폭 증가세에 있다.

[표 19-3]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단위: g/인·일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2009~2018	2014~2018
견과류	밤	2.71	2.43	2.37	2.29	2.29	2.14	2.03	2.02	1.81	1.99	-3.4	-1.8
	호두	0.52	0.48	0.52	0.60	0.63	0.70	0.69	0.74	0.77	0.66	2.7	-1.5
	잣	0.13	0.33	0.31	0.08	0.13	0.37	0.14	0.51	0.22	0.06	-8.2	-36.5
	은행	0.09	0.09	0.09	0.08	0.11	0.15	0.21	0.15	0.09	0.08	-1.3	-14.5
	아몬드	0.61	0.70	0.83	1.21	1.16	1.28	1.20	1.21	1.31	1.22	8.0	-1.2
버섯류	송이	0.04	0.06	0.03	0.05	0.03	0.03	0.03	0.03	0.02	0.03	-3.1	0.0
	표고	0.34	0.31	0.28	0.97	0.95	1.10	1.13	1.10	1.09	1.12	14.2	0.5
산나물		3.66	4.01	3.88	3.00	2.67	2.73	2.88	2.89	2.98	3.28	-1.2	4.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식품수급표

3.2. 소비 유형

- 2020년 11월에 실시한 밤, 떫은감, 대추, 표고, 고사리에 대한 소비자 조사[3] 결과를 전년과 비교했다. 품목별로 몇 가지 차이를 보였다.
  - 품목별 구매 응답 비율[4]은 고사리 84.3%, 표고버섯 83.0%, 떫은감 71.4%, 밤 65.6%, 대추 51.0% 순으로 높았다.
  - 밤 구입주기는 햇밤 출하시기에서 분기에 1회로 변했으며, 다른 품목과 달리 재래시장에서 구매 비율이 높다.
  - 생표고는 다른 품목에 비해 구입주기가 월 1회로 짧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저장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 고사리 주 구입처는 대형마트에서 재래시장으로 바뀐 것이 눈에 띈다. 선호하는 제품형태도 건고사리에서 생고사리로 변했다.
  - 5개 품목의 2020년 소비량은 작년과 비슷했고, 내년 소비 전망은 올해 소비량과

3) 2019년과 2020년의 표본과 조사 방법이 상이하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019년은 주요 도시지역 거주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주요 도시지역 거주 주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4) 전체 응답자(2,000명) 중 해당 품목을 연 1회 이상 구매 경험이 있는 자의 비율을 의미함.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임산물이 가격 변화 등에 비탄력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이다.

[표 19-4] 품목별 소비자 선호 비교

단위: %

품목	밤		떫은감		대추(건)		표고(생)		고사리	
년도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구입 주기	햇밤 출하	1회/ 1분기	3~4회/년	3~4회/년	3~4회/년	3~4회/년	1회/ 월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월
	(30.2)	(41.7)	(46.0)	(53.9)	(42.3)	(63.8)	(31.6)	(39.4)	(36.5)	(53.1)
주 구입처	재래 시장	재래 시장	대형 마트	대형 마트	대형 마트	대형 마트	대형 마트	대형 마트	대형 마트	재래 시장
	(31.4)	(56.2)	(48.1)	(37.4)	(47.8)	(33.5)	(44.8)	(37.3)	(39.3)	(37.8)
올해 소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	작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작년 수준
	(75.5)	(61.4)	(78.8)	(79.1)		(72.5)	(77.5)	(74.9)	(81.8)	(75.2)
내년 소비 전망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올해 수준
	(87.9)	(74.7)	(81.7)	(78.5)	(74.8)	(77.5)	(80.7)	(72.2)	(76.2)	(75.0)
선호하는 제품 형태	생밤 (껍질 포함)	생밤 (껍질 포함)	홍시	홍시	건대추	건대추	생표고	생표고	건 고사리	생 고사리
	(78.5)	(88.5)	(46.3)	(51.4)	(51.5)	(71.1)	(66.9)	(64.2)	(57.6)	(51.1)

주 1) 가장 많이 선택한 답을 기재함.
2) 괄호 안의 값은 선택 비율(%)을 의미함.
3) *은 조사하지 않음.

3.3. 코로나19 영향

-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 외식 소비 지출액 비교 결과, 발생 이후 외식비 지출액이 감소하였으며, 국내산 및 지역산 식료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9-5] **코로나19 발생 전, 후 외식소비 지출액 및 국내산 식료품 관심도 증감 비율**

단위: %

구 분	감소	비슷	증가
외식 소비 지출액	47.0	27.2	25.8
국내산 및 지역산 식료품 관심도	4.0	51.0	45.0

-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 소비 지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가정 내 식료품 지출비용 중 임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전: 16.4% → 발생 후: 18.5%
- 임산물 구매는 온라인 33.4%, 오프라인 66.6%로 주로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구매 증가 비율이 33.8%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이동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김상효 외(2020)[5]의 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입 횟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6%로 나타났다.

[표 19-6] **코로나19 발생 전, 후 온라인 임산물 구매 변화**

단위: %

구 분	감소	비슷	증가
온라인 구매	10.0	56.2	33.8

- 코로나19 발생 전, 후 품목별 임산물 구매 횟수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고버섯 구매횟수 증가(21.8%) 비율이 감소 비율보다 15.0%p 높게 나타났고, 떫은감에서 구매횟수 감소(12.6%) 비율이 증가 비율보다 4.1%p 높게 나타났다.

5) 김상효 외(2020),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농식품 소비행태 영향 분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소비정보분석사업.

[표 19-7] **코로나19 발생 전, 후 온라인 임산물 구매 횟수 변화**

단위: %

구 분	감소	비슷	증가
표고버섯	6.8	71.5	21.8
밤	10.7	69.3	20.1
대추	9.1	78.2	12.6
떫은감	12.6	78.9	8.5
산채	10.4	72.6	17.0

- 코로나19 발생 전, 후 품목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6], 밤은 학력과 개인의 먹거리 선택기준, 대추는 가구소득과 건강상태, 먹거리 선택기준, 표고버섯과 산채는 학력, 가구소득, 가족원수, 건강상태, 먹거리 선택기준 모든 요인이 임산물 구매횟수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밤, 대추, 표고, 산채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코로나19에 대응해 임산물 소비를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8] **코로나19 발생 후 임산물별 구매 증감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상관관계**

구 분		학력	가구소득	가족원수	건강상태	먹거리 선택기준
밤 (1311명)	Pearson 상관계수	.081**	.066*	.064*	.050	.083**
대추 (1020명)	Pearson 상관계수	.046	.062*	.021	.073*	.065*
표고 (1659명)	Pearson 상관계수	.113**	.125**	.102**	.075**	.063*
떫은감 (1428명)	Pearson 상관계수	.043	.041	.019	.024	.012
산채 (1685명)	Pearson 상관계수	.077**	.143**	.084**	.065**	.071**

주 1)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2) 학력 - 1. 중졸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 졸업, 4. 대학원 이상
가구소득 -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10, 1000만원 이상
가족원수 - 1. 1인, 2. 2인, 3. 3인, 4. 4인, 5. 5인, 6. 6인 이상
건강상태 -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은 편, 5. 매우 좋음
먹거리 선택기준 - 1. 전혀 까다롭지 않음, 2. 까다롭지 않음, 3. 보통, 4. 까다로운 편, 5. 매우 까다로움

6) 임산물 구매 횟수 변화(감소, 비슷, 증가)에 인구사회학적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표 19-8). 본 표의 양의 값은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밤, 표고, 산채는 학력이 높을수록 구매횟수를 더 증가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단기소득임산물 수출입 동향

- 전체 임산물의 수출과 수입은 2018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과 수입 또한 감소세이다.
  - 새털(△7.9%)과 밤(△27.1%)의 수출액 감소분이 컸으며, 그밖에 벽지(△2.0%)와 표고(△11.7%)가 감소했다. 반면, 감은 4.5% 증가했다.
  - 수입의 경우, 주요 품목인 아몬드(8.0%)의 수입액 증가에도 전체 수입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호두(△21.9%), 표고(△12.8%), 로진(△32.8%), 새털(△13.4%) 등 주요 품목의 수입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19-9] 단기소득임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증감률	
							2015 대비	2018 대비
전체								
수출(A)		272	420	434	521	407	49.7	-21.8
수입(B)		4,620	6,404	7,010	7,822	6,512	41.0	-16.8
수지 (C=A-B)		-4,348	-5,984	-6,576	-7,301	-6,104	40.4	-16.4
단기소득임산물								
수출(D)		147 (54.1)	145 (34.5)	106 (24.5)	117 (22.5)	106 (26.1)	-27.7	-9.1
상위 5위	새털	93	91	51	61	56	-39.9	-7.9
	밤	17	20	25	24	18	1.4	-27.1
	벽지	11	9	11	11	11	2.5	-2.0
	감	1	2	2	4	4	358.2	4.5
	표고	2	3	2	2	2	-22.1	-11.7
수입(E)		804 (17.4)	764 (11.9)	758 (10.8)	832 (10.6)	783 (12.0)	-2.6	-5.9
상위 5위	아몬드	236	176	172	165	178	-24.4	8.0
	호두	142	92	110	106	83	-41.6	-21.9
	표고	47	39	38	43	38	-20.2	-12.8
	로진	48	39	38	33	22	-53.6	-32.8
	새털	80	39	37	44	38	-52.8	-13.4
수지 (F=D-E)		-657 (15.1)	-619 (10.4)	-652 (9.9)	-715 (9.8)	-677 (11.1)	3.0	-5.3

주 1) 괄호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벽지는 갈포섬유(칡 섬유)로 만든 것(HSK code: 4814901010)과 기타(HSK code: 4814901090)를 포함함.
자료: 산림청(각년도), 임산물 수출입 통계.

02 표고와 고사리 수급동향과 전망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표고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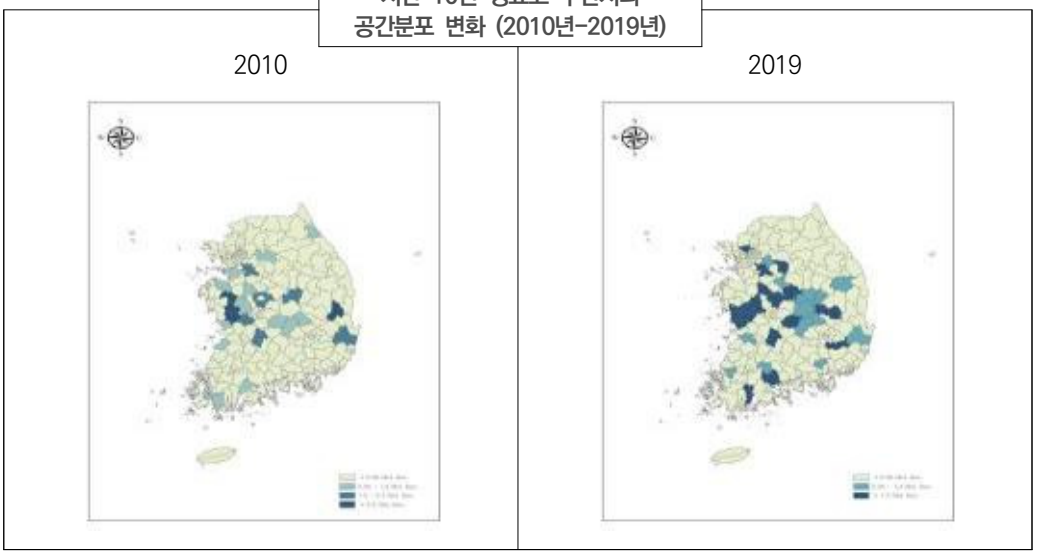
1.1. 수급 동향

1.1.1. 생산 동향

[생표고]

- 2019년 생표고 생산량은 2010년 대비 7.5% 감소했다. 생표고 생산은 지난 10년 동안 2만여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지난 10년, 기존 산지(부여, 청양 등)를 중심으로 확대된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지난 10년 생표고 주산지의 공간분포 변화 (2010년-2019년)



자료: 산림청(2011, 2020), 임산물생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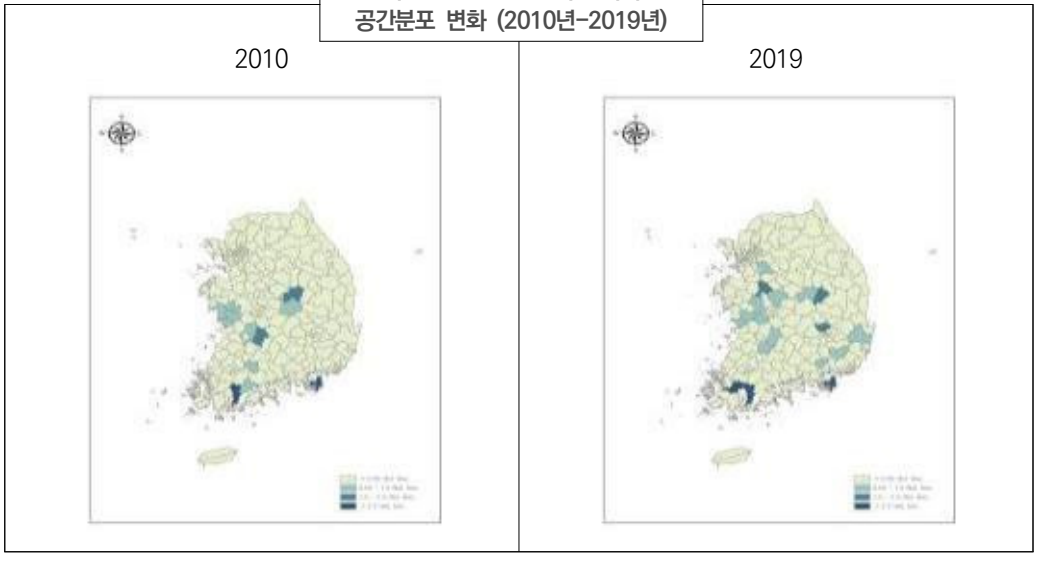
• 2020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최대 5% 증가한 20,200톤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임가의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산 톱밥배지 공급 여건 개선, 시설 확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표고]

• 2019년 생산량은 2010년 대비 64.8%나 감소했다. 표고목과 노동력 공급 부족, 표고목 재배의 대체재인 톱밥배지 방식 확산 때문으로 보인다.

- 단, 주산지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시설 재배의 건표고 유입, 건표고에 대한 인식 증가, 포장 용이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건표고 주산지의 공간분포 변화 (2010년-2019년)



자료: 산림청(2011, 2020), 임산물생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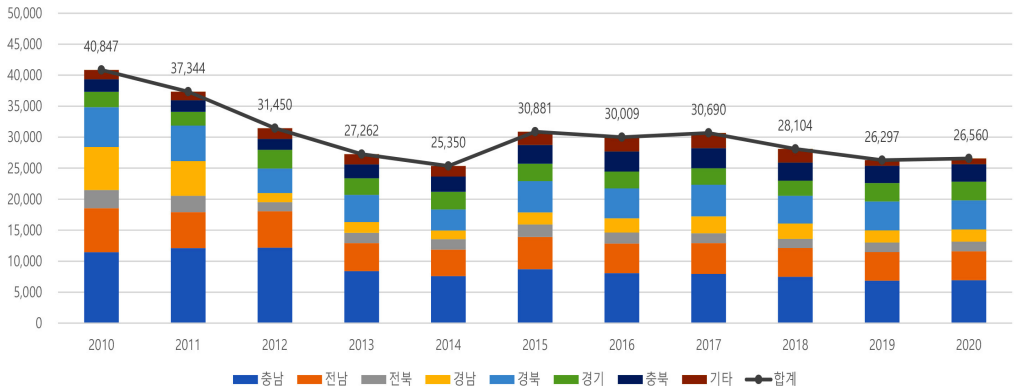
• 2020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최대 10% 하락한 870톤(생표고 기준, 6,360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표고목과 노동력 공급의 어려움, 톱밥배지 방식 전환으로, 생산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

- 2020년 표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6,560톤(생표고 기준)으로 추정된다. 출하형태별로는 생표고 20,200톤, 건표고 870톤(생표고 기준, 6,360톤) 내외가 될 것이다.
  - 지역별 표고버섯 생산량은 충남(26.1%)이 가장 많고, 경북(17.7%), 전남(17.5%) 순이다.

그림 19-2. **지역별 표고버섯 생산 동향**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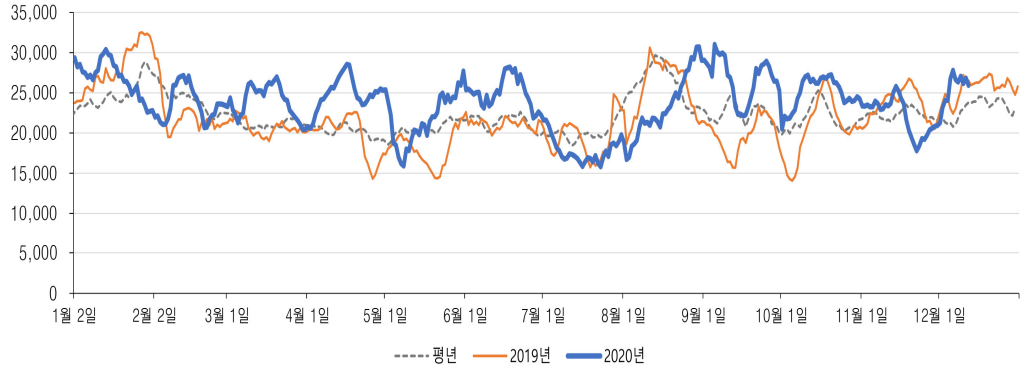
주 1) 2020년 값은 추정치임.
2) 건표고는 생표고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7.31임.
3) 기타에는 광역시(6개), 특별자치도(1개), 특별자치시(1개), 지방산림청이 포함됨.
자료: 산림청(2020), 임산물생산조사.

1.1.2. 가격 및 유통 동향

- 2020년 가락시장 생표고 평균 도매가격은 23,331원/4kg으로 전년(21,786원/4kg) 대비 7.1% 상승했다. 생표고 도매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시장 반입량이 4.8%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산 반입량은 작년과 비슷했지만 수입산 반입량이 작년 대비 17.4% 감소했다.

그림 19-3. **생표고 가격 동향**

단위: 원/4kg



주 1) 중품기준 도매시장 가격임. 평년은 2015~2019년의 가격에서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임.
2) 2020년은 12월 14일까지의 결과로 추정치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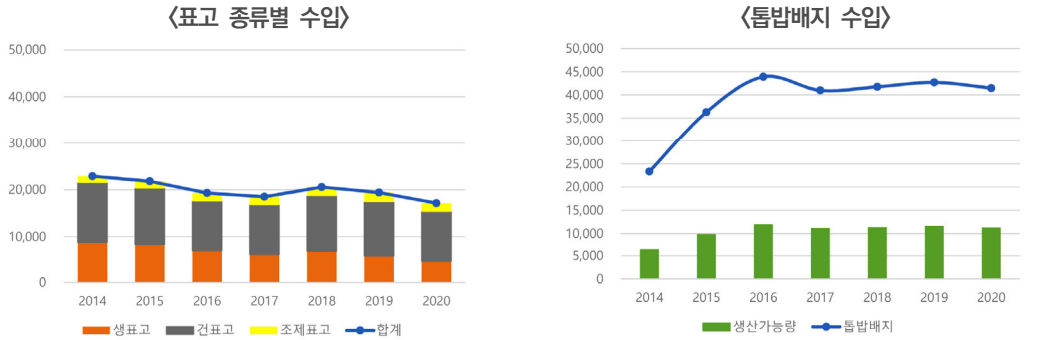
1.1.3. 수출입 동향

- 생표고 수출량은 32.9톤, 건표고 수출량은 40.4톤(생표고 환산 295.1톤)이었다. 생표고, 건표고는 전년 대비 각각 22.7%, 19.9%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수출 여건이 좋지 않았고, 건표고는 국내 생산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생표고, 건표고, 조제표고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19.9%, 8.0%, 9.9% 감소했다.
  - 코로나19로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20년 중국산 톱밥배지(버섯종균) 수입량은 약 41,472톤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2016년까지 급격히 증가했던 톱밥배지 수입량이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산 톱밥배지 공급 개선과 원산지표시요령(개정안)* 시행 도래가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 2021년 1월 1일부터 표고버섯 원산지표시요령 개정안(2019.10.15. 일부개정)이 시행됨. 2020년 12월 31일 전에 판매되는 표고버섯은 종전 규정(예: 국산(접종종균:중국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표고버섯은 개정된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재배기간이 긴 국가[7]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함.

그림 19-4. **표고버섯 수입 동향**

단위: 톤



주 1) 2020년 값은 12월 20일까지의 결과로 추정치임.
2) 모두 생표고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건표고 7.31, 조제표고 0.2임.
3) 생표고 생산가능량은 톱밥배지 중량에 0.27을 곱해 얻음(일본 키노코 연감).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1.2. 수급 전망

1.2.1. 2021년 전망

- 생산량은 2020년 추정치인 26,560톤보다 5.4% 증가한 28,000톤 수준이 될 것이다. 건표고 감소세는 지속되나, 국내산 톱밥배지 공급 여건 개선, 시설 확충으로 대규모 톱밥배지 재배 임가의 생표고 생산량 증가가 건표고 감소분을 보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요령(개정안) 영향에 따른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 감소로 생산량 증가폭이 줄 수 있다.
-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6.6% 감소한 16,000톤(생표고 기준) 내외가 될 것이다. 톱밥배지 수입량도 국내 톱밥배지 공급 여건 개선과 원산지 표시요령 개정[8]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수출량은 건표고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약 8.8% 감소한 300톤(생표고 기준) 내외가 될 것이다.

7) 원산지 표시기준 :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배양한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수확한 경우에는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8) 2021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중국산 톱밥배지로 생산하더라도 접종 후 체류 기간이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함.

1.2.2. 중장기 전망

- 2030년 생산량은 33,000톤 수준이 될 것이다.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생표고 재배량이 늘고 있다는 점, 증가하는 귀농귀산촌인의 재배 의향이 높다는 점, 재배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수치이다.
- 2030년 수입량은 국내 생산 증가로 1만 5,000톤으로 줄고, 수출량은 2021년 수준인 300톤을 유지할 것이다.

[표 19-10] 표고버섯 수급 전망

단위: 톤

구 분	2020	전 망		
		2021	2025	2030
생산	26,560	28,000	30,000	33,000
수입	17,129	16,000	15,500	15,000
수출	329	300	300	300

주 1) 2020년 값은 추정치임.
2) 건표고를 생표고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7.31임.
3) 조제표고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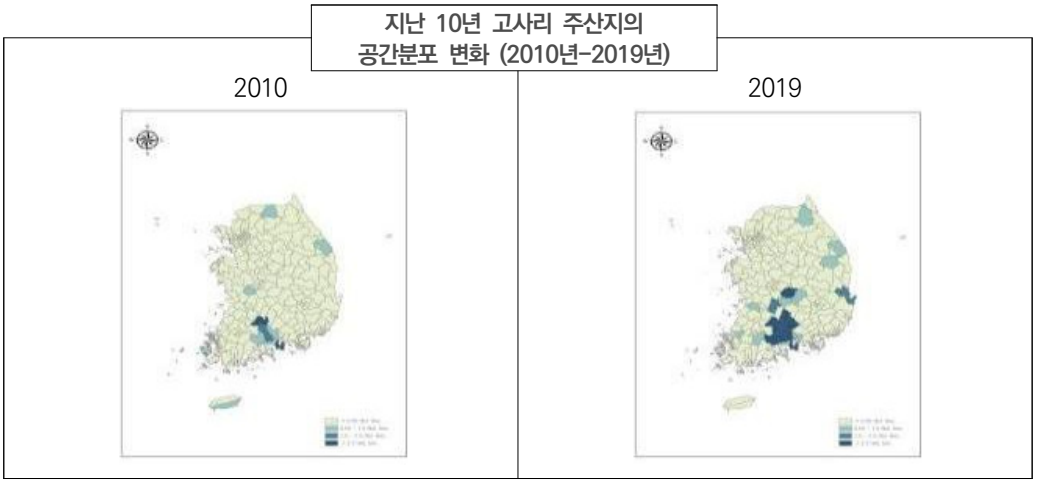
2. 고사리

2.1.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 2019년 생산량은 2010년 대비 90% 증가하였다. 고소득 작물로 인식되어 재배면적이 늘었기 때문이다.
  - 초기 남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산지는 최근 지리산(함양, 남원, 구례, 하동, 산청 등)과 덕유산(진안, 무주, 영동, 김천 등) 권역으로 확대되었다.[9)]
  - 주산지는 남해, 순천, 광양 등 남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Moran I 지수를 통해 본 공간집적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

9) 지리산 및 덕유산 권역 이외에도 2019년 고사리 생산량이 인제, 봉화, 포항, 함평 지역에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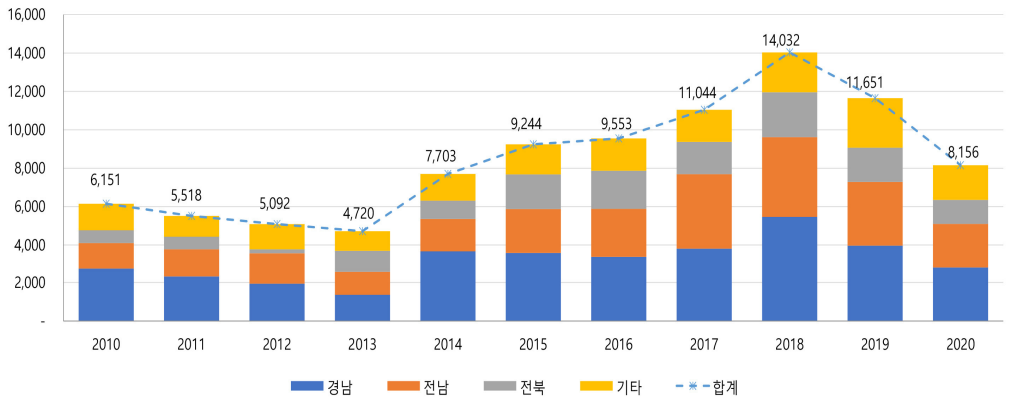


자료: 산림청(2011, 2020), 임산물생산조사.

- 2019년부터 고사리 생산량은 감소추세이며, 특히 2020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30% 감소한 8,156톤으로 추정된다.
  - 이는 첫 출하기인 3월~4월 경 기상이변에 따른 냉해, 가뭄 등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림 19-5. 지역별 고사리 생산 동향

단위: 톤



주: 2020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2020), 임산물생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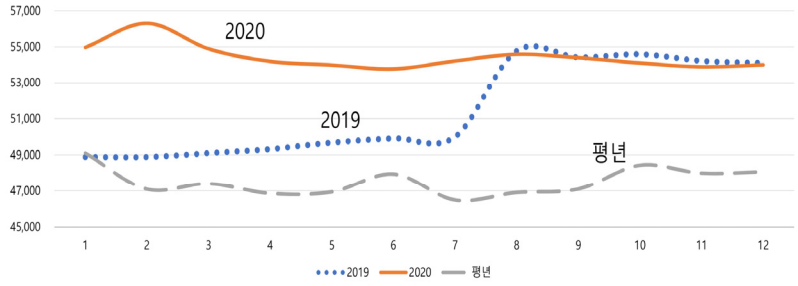
10) 모란 I 지수 값은 2010년 0.02에서 2019년 0.15로 증가하였다.

2.1.2. 가격 동향

• 2020년 마른고사리 생산지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5.7% 상승한 5만4,444원/kg 수준이다. 4월 초에 발생한 냉해와 서리피해, 가뭄피해 등이 초물부터 끝물까지 이어져 고사리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출하량 감소가 연중 마른고사리 가격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 19-6. 마른고사리 산지가격 동향(상품기준)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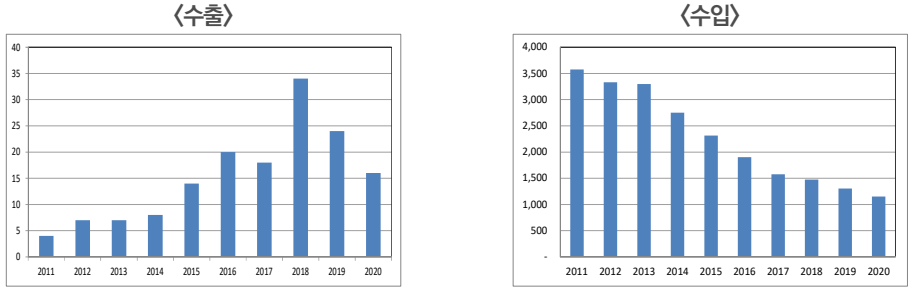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가격에서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임.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2.1.3. 수출입 동향

• 마른고사리 수출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전년대비 33% 감소했다. 이는 국내 생산량 감소와 가격 강세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9-7. 마른고사리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주: 2020년은 추정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 마른고사리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2010년 이후 국내 고사리가격 하락[11]으로 인하여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2019년 이후, 국내 마른고사리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마른고사리 수입량이 감소한 이유는 음식점 등 대량수요처에서 조리가 편리한 삶은 고사리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12]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음식점 등 대량수요처의 마른고사리 수요 감소로 수입량이 더 줄었다.

2.2. 수급 전망

2.2.1. 2021년 전망

• 고사리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2% 감소한 8,000톤으로 추정된다.
  - 2018년 이후 매년 봄철 꽃샘추위로 인한 냉해피해와 가뭄 등 기상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2021년 고사리 생산량은 최근 기상 여건과 임가 고령화에 따른 농사 기피 추세를 반영했을 때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른고사리 수입량은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국내 고사리 가격 강세에도 삶은 고사리 수입 증가와 2020년 발생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수요 침체로 전년대비 약 2% 감소한 1,130톤(생고사리 기준 1만1,300톤)으로 예상된다.

• 2021년 마른고사리 수출량은 국내 고사리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15톤(생고사리 기준 150톤)으로 추정된다.

2.2.2. 중장기 전망

• 고사리는 재배자 고령화와 대체 작목(눈개승마, 명이나물, 어수리 등) 확산 영향으

11) 2012년 상품기준 평균 가격 56,963원/kg, 2015년 48,853원/kg, 2018년 47,750원/kg

12) 삶은 고사리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었으며, 2017년 150톤, 2018년 292톤, 2019년 295톤, 2020년 290톤(추정치) 으로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로 생산량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매년 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상피해로 품질 저하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2030년 고사리 생산량은 2021년 대비 13% 감소한 6,945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출량도 2030년 13톤(생고사리 기준 130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마른고사리 수입은 대체재인 삶은 고사리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가 반영되어 2030년에는 2021년보다 소폭 하락한 942톤(생고사리 기준 9,42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11] 고사리 수급 전망

단위: 톤

구 분	2020	전 망		
		2021	2025	2030
생 산	8,156	8,000	7,683	6,945
수 입	11,530	11,300	10,420	9,420
수 출	160	150	140	130

주 1) 2020년 값은 추정치임.
2) 수입, 수출은 마른고사리를 생고사리로 환산한 수치임(환산비율: 10)

03 수실류 수급동향과 전망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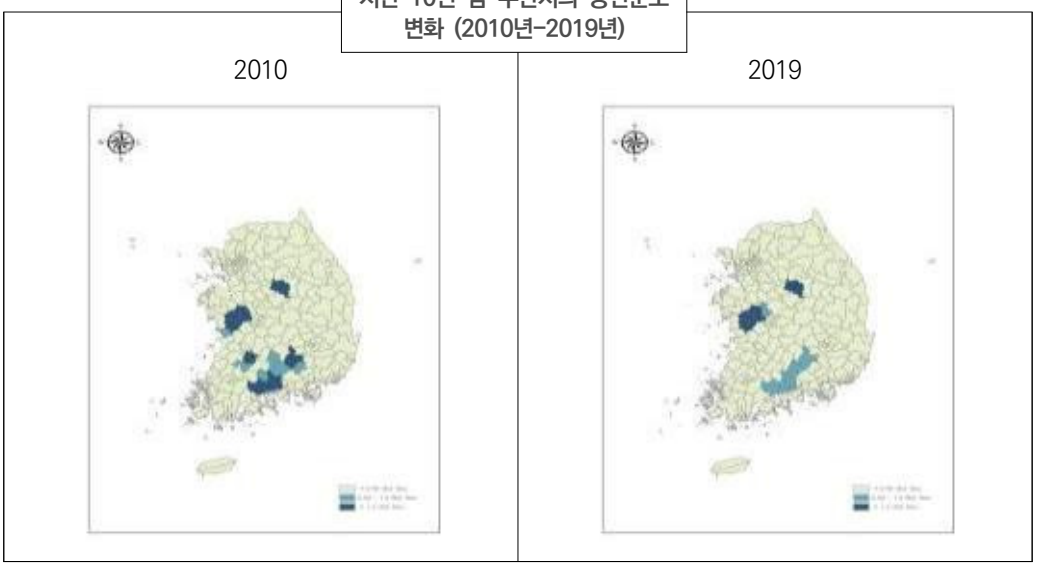
1. 밤

1.1. 수급 동향

1.1.1. 생산 동향

- 2019년 밤 생산량은 2010년 대비 33% 감소한 46,358톤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낮은 수취가격, 높은 고령목 비율 등이 주요 원인이다.
  - 공주, 부여, 청양, 충주 등 중부지역 주산지의 큰 변화는 없었으나, 남부지역 주산지 재배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밤 주산지의 공간분포 변화 (2010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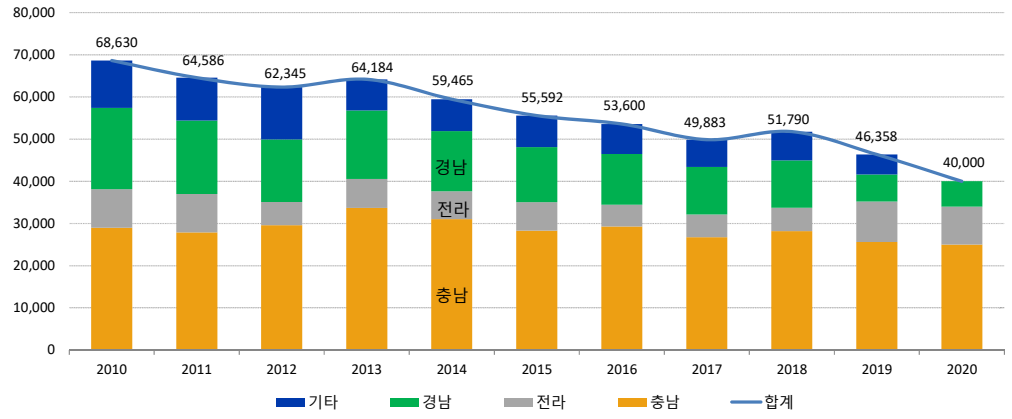


자료: 산림청(2011, 2020), 임산물생산조사.

- 충남의 밤 생산량은 약 28,0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남과 전라도 생산량은 각각 연평균 8%씩 감소했다. 남부지역 생산량 감소는 노동력 감소, 높은 고령목 비율, 낮은 수취가격 때문이다.

그림 19-8. **지역별 밤 생산 동향**

단위: 톤



주: 2020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2020), 임산물생산조사.

- 2020년 밤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 평년 대비 22% 감소한 40,000톤 내외로 추정된다. 초기 주산지 생육은 전년보다 양호했다. 그러나 여름철 긴 장마,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하였으며, 태풍으로 낙과피해가 발생하였다.
  - 일조량이 부족하여 중·만생종 수확시기가 늦어졌으며, 부여지역은 수확 직전 태풍이 발생하여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공주지역의 경우 지역별·임가별 차이는 있으나, 만생종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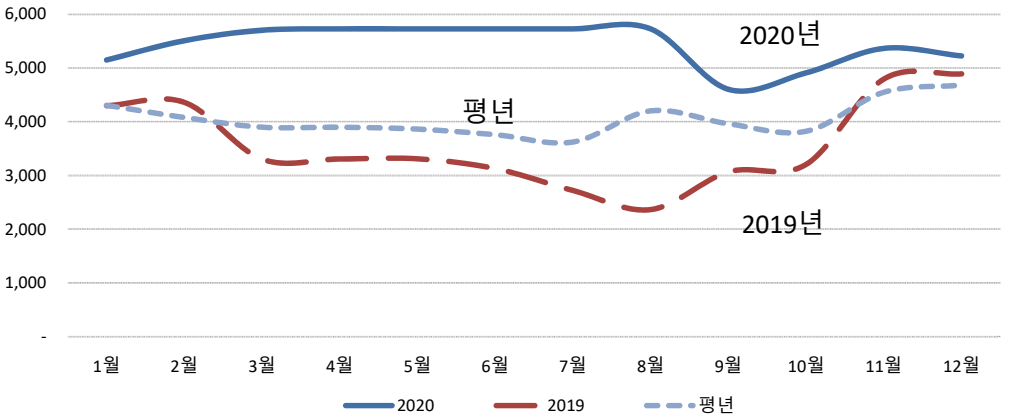
1.1.2. 가격 동향

- 2020년 가락시장(상품) 평균가격은 5,426원/kg으로, 전년(3,563원/kg) 대비 52% 높고, 평년(4,027원/kg) 대비 35% 높았다.
  - 2019년산 밤 유통량 감소와 햇밤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다.

- 8~9월에는 햇밤 출하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이후에는 태풍 피해 등으로 밤 생산이 감소하고, 출하가 지연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재래시장, 마트 등 오프라인 구매와 겨울철 군밤 소비가 예년보다 감소했다. 2021년 설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9-9. **밤 가격 동향(상품)**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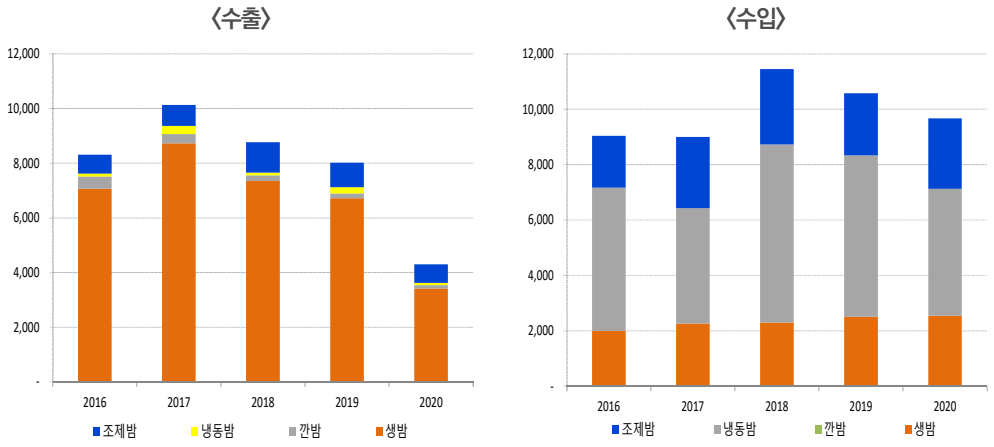
주: 가락시장의 상품 기준임. 평년가격은 '15~'19년까지의 평균임. 본 가격은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격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1.3. 수출입 동향

- 밤 수출량은 4,153톤(생밤환산 4,299톤)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 평년 대비 49% 감소했다.
  -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국내 생산량 감소, 높은 국내 가격, 일본의 밤 수요 감소 때문이다.
- 수입량은 8,135톤(생밤환산 9,675톤)으로, 전년 대비 7% 감소, 평년 대비 7% 감소했다.

그림 19-10. **밤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주: 2020년은 추정치이며, 제시된 수치는 생밤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1.2. 수급 전망

1.2.1. 2021년 전망

- 2021년 밤 생산량은 기상여건이 평년 수준과 비슷하다면 2020년 추정치인 40,000톤보다 11% 증가하고, 평년 대비 14% 감소한 44,300톤 내외로 전망된다.
- 수출은 2021년 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81% 증가한 7,800톤으로 전망된다.
- 수입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0,700톤으로 전망된다. 수입산 밤 유통체계가 안정되어 있어 수입량은 1만 톤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2. 중장기 전망

- 2030년 밤 생산량은 2021년 대비 9% 감소한 40,200톤 수준이 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와 노동력 감소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 2030년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7,400톤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2030년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입산 밤 수요 증가로 12,800톤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 국산 밤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밤 산업의 정책적 강화를 위해 밤 수확 노동력 절감 기술, 박피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밤 가공제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

[표 19-12] 밤 수급 전망

단위: 톤

구 분	2020	전 망		
		2021	2025	2030
생 산	40,000	44,300	42,200	40,200
수 입	9,675	10,700	11,700	12,800
수 출	4,299	7,800	7,600	7,400

주 1) 2020년 값은 추정치임.
2) 생밤으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깐밤 2.0, 냉동밤 1.4, 조제밤 1.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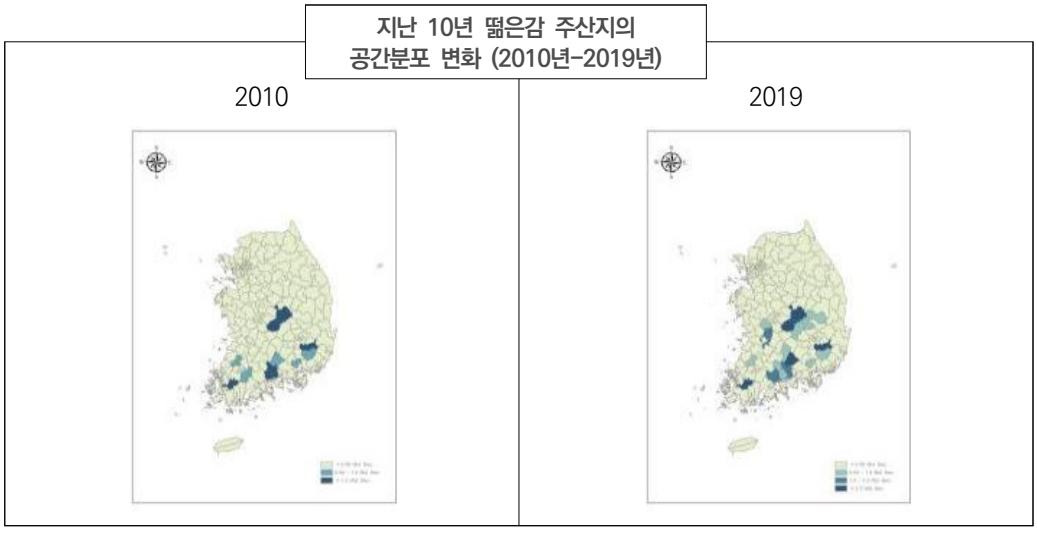
2. 떫은감

2.1.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 2019년 생산량은 2010년 대비 80.9% 증가하였다. 생산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임업정책자금[13] 운용 개선에 따른 재배면적 확대와 재배기술 발달[14] 때문이다.
  - 기존 산지(상주, 산청, 하동, 영암 등) 중심에서 순천, 함양, 김천, 구미, 의성으로 주산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원 주산지와 거리가 있는 논산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13)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림청 지원정책임.
14) 비료, 전정, 방제기술 등 재배기술 발달로 해거리 현상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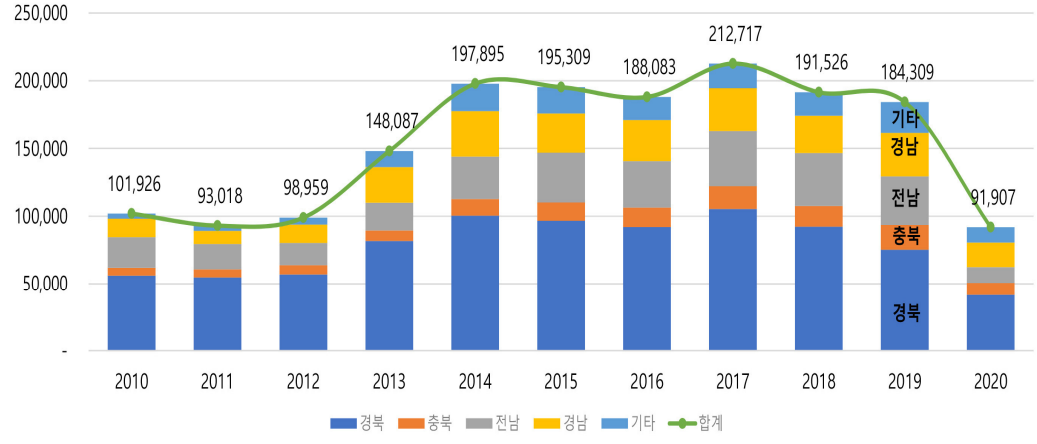


자료: 산림청(2011, 2020), 임산물생산조사.

- 2020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50.1% 감소한 91,907톤 내외로 추정된다. 4월 중순까지 이어진 냉해·돌풍 피해로 인하여 착과량이 52.8% 감소했고, 긴 장마·집중호우 및 연이은 태풍 등으로 낙과량이 41.7% 증가했기 때문이다.
  - 전남 영암(대봉시)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73%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북 상주(둥시)와 경북 청도(반시) 생산량도 각각 전년 대비 57%, 31% 감소했다.

그림 19-11. **지역별 떫은감 생산 동향**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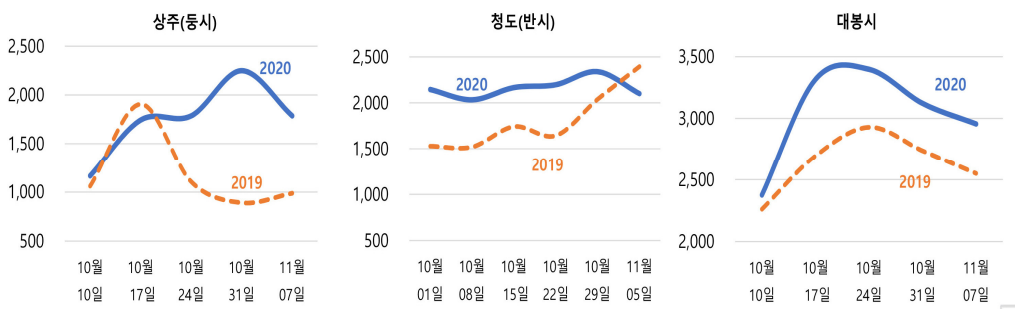
주: 2020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2020), 임산물생산조사

2.1.2. 가격 동향

- [원료감] 햇감 출하시기(10~11월)의 원료감 가격이 2019년보다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원료감 생산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 10월부터 11월 초순까지 상주 농협공판장 '둥시' 평균가격은 1,746원/kg으로 전년동기(1,190원/kg) 대비 46.8% 상승하였다.
  - 같은 시기 청도 농협 '반시' 평균가격은 2,164원/kg으로 전년동기(1,812원/kg) 대비 19.5% 상승하였다.
  - 같은 시기 '대봉시' 평균가격은 3,033원/kg으로 전년동기(2,633원/kg) 대비 15.2% 상승하였다.

그림 19-12. **원료감 가격 동향**

단위: 원/kg



주: 상주는 원예농협의 1등급 평균가격, 청도는 새청도농협의 약시 평균가격, 대봉시는 특등급 평균가격임.
자료: (상주_둥시, 청도_반시)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대봉시)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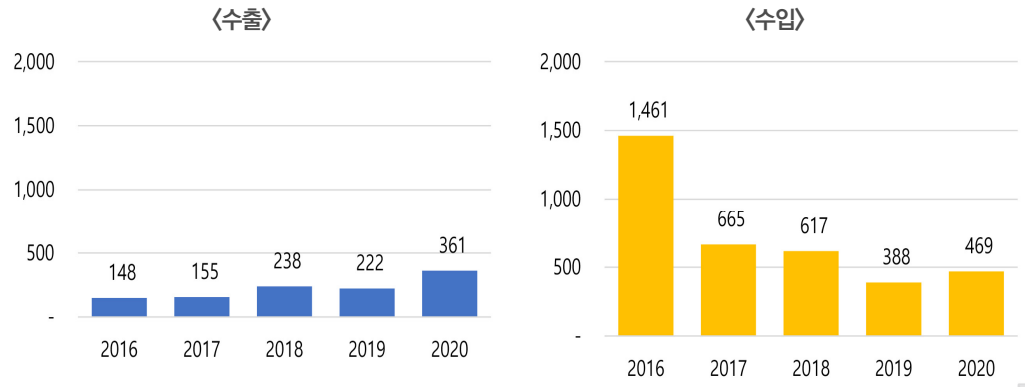
2.1.3. 수출입 동향

- 최근 5년, 건조감 수출량은 주 수출국인 일본, 베트남, 홍콩 등의 한류 영향으로 증가세다. 2020년 건조감 수출량은 361톤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 평년 대비 129% 증가했다.
- 최근 5년, 건조감 수입량은 감소세다. 외국산 건조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소비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조감 수입량은 2017년 크게 감소한 후에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수입량은 469톤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그림 19-13. **건조감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2.2. 수급 전망

2.2.1. 2021년 전망

- 2021년 떫은감 생산량은 2020년과 같은 기상이변이 없다면, 평년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161,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0년 기상이변에 따른 이례적 생산량 감소를 고려한 수치이다.
- 수출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563톤일 것이며, 수입량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682톤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평년 수준과 2020년 이례적 생산량 감소를 반영한 수치다.

2.2.2. 중장기 전망

- 2030년 생산량은 2021년 대비 9% 증가한 176,00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재배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잦아진 기상 이변으로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30년 수출량은 802톤으로 2021년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량은 519톤으로 2021년 대비 24%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상 이변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재배 피해 보상을 위하여 임가를 위한 지원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19-13] 떫은감 수급 전망

단위: 톤

구 분	2020	전 망		
		2021	2025	2030
생 산	91,907	161,000	168,000	176,000
수 입	704	682	604	519
수 출	542	563	659	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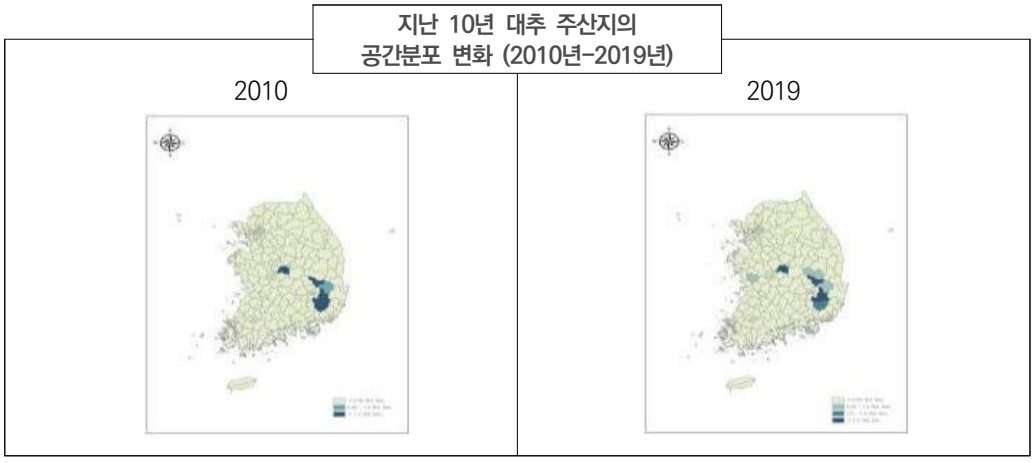
주: 건조감을 신선감으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1.5임.

3. 대추

3.1. 수급 동향

3.1.1. 생산 동향

- 2019년 대추 생산량은 2010년과 비슷한 9,436톤이다.
  - 경산, 보은, 군위 등 주요 주산지 중심에서 부여, 의성 등으로 주산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경남지역의 재배지는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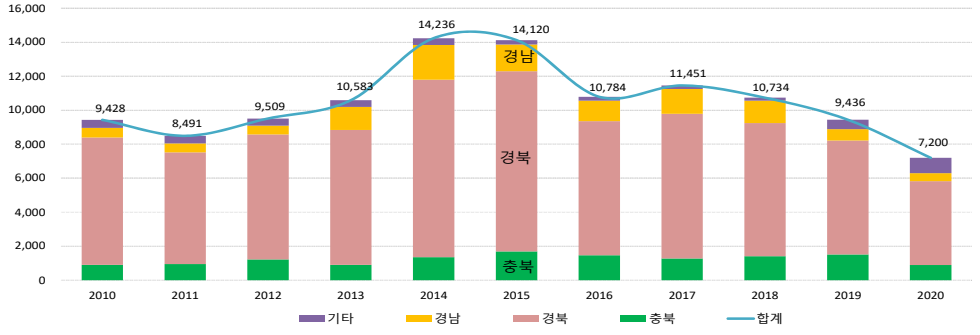


자료: 산림청(2011, 2020), 임산물생산조사.

- 2010년부터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4년 14,236톤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 건대추 주 출하지인 남부지역 생산량은 2015년 12,167톤에서 2019년 7,369톤으로 연평균 12% 감소한 추세를 보였으며, 생대추 주 출하지인 중부지역은 2015년 1,696톤에서 2019년 1,508톤으로 연평균 3%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남부지역의 경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생대추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중부지역 생산량 감소폭이 크지 않으며, 사과대추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여가 신규 재배지로 나타났다.

그림 19-14. **지역별 대추 생산 동향**

단위: 톤



주: 2020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2020). 임산물생산조사

• 2020년 대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 평년 대비 35% 감소한 7,200톤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보다 적은 착과수, 긴 장마 및 일조량 부족,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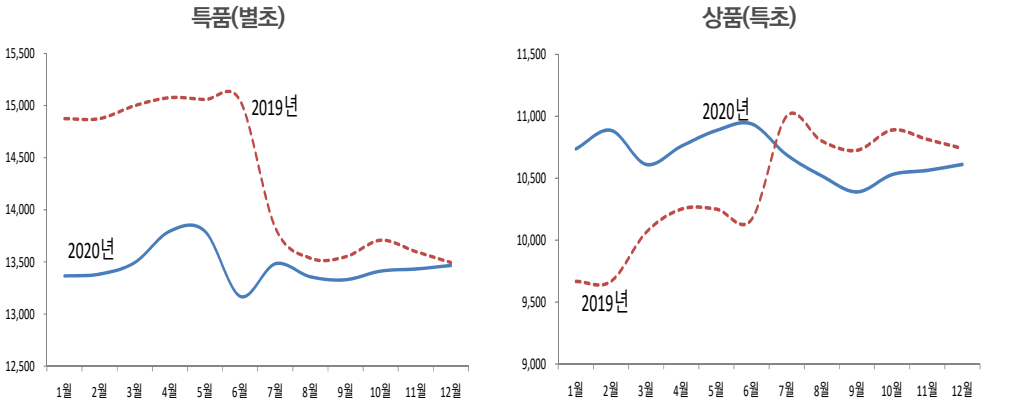
3.1.2. 가격 동향

• 2020년 건대추 특품 산지 평균 가격은 13,458원/kg으로, 전년(14,307원/kg) 대비 12% 낮았고, 평년(11,921원/kg) 대비 13% 높았다.

• 상품의 산지 평균가격은 10,676원/kg으로, 전년(10,419원/kg) 대비 3% 높았고, 평년(7,825원/kg) 대비 36% 높았다.

그림 19-15. **건대추 가격 동향**

단위: 원/kg



주: 산지가격 기준임.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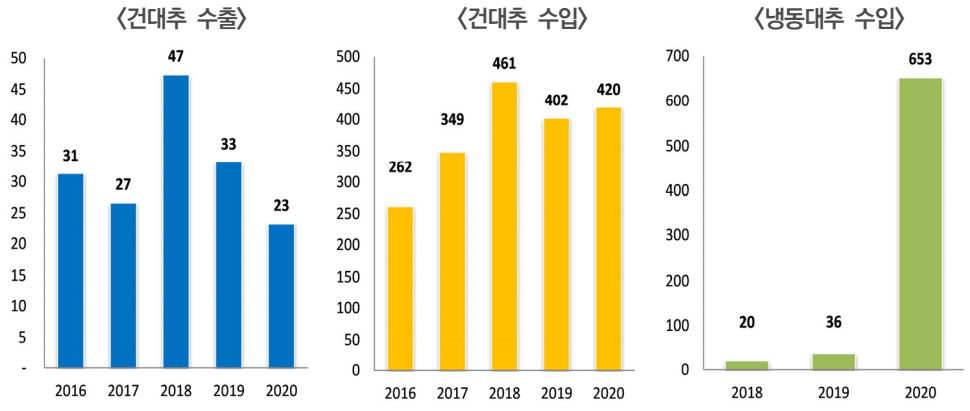
3.1.3. 수출입 동향

• 건대추 수출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15톤(생대추 환산 23톤)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홍콩(39%), 일본(18%), 베트남(17%)이다.

- 건대추 수입량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268톤(생대추 환산 420톤)이다.
- 건대추 수입 증가는 국내 생산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산 건대추가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식품 가공업체, 떡집, 예식장에서 중국산 대추 선호가 증가했다.
  ※ 2020년 건대추의 최소시장접근물량(MMA) 259.5톤은 모두 수입되었다.
- 건대추보다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 수입이 2018년 20톤, 2019년 63톤, 2020년 653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냉동대추 수입이 전년과 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국내 건대추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추 품종개량,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림 19-16. **건대추, 냉동대추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주: 2020년은 추정치이며, 제시된 수치는 생대추로 환산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3.2. 수급 전망

3.2.1. 2021년 전망

- 2021년 대추 생산량은 기상여건이 평년과 비슷하다면, 2020년 추정치인 7,200톤보다 18% 증가한 8,500톤 내외일 것이다.

• 수출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30톤일 것이며, 수입량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407톤일 것이다.

3.2.2. 중장기 전망

• 2030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2021년보다 21% 정도 감소한 6,700톤 수준일 것이다.

• 2030년까지 수출량은 2021년 대비 33% 감소한 20톤으로 예상된다.

• 2030까지 수입량은 건대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407톤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수입산 건대추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면 높은 관세를 고려하지 않고 더 많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 냉동 대추 수입으로 대추 전체 수입물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 국내 대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종개량, 가공제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

[표 19-14] 대추 수급 전망

단위: 톤

구 분	2020	전 망		
		2021	2025	2030
생 산	7,200	8,500	7,600	6,700
수 입	420	407	407	407
수 출	23	30	25	20

주 1) 2020년 값은 추정치임.
2) 건대추를 생대추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0.64임.
3) 수출입은 건대추 기준임.